

《篆訣歌》의 隸變 分析에 대한 고찰

- 字形의 合併을 중심으로 (1) -

서 한 용*

<目次>

I. 緒論	III. 《篆訣歌》 隸變 分析
II. 《篆訣歌》 篆書	IV. 結論

I. 緒論

《篆訣歌》는 七言의 口訣로, 篆書와 隸書의 字形 차이를 노래해 만든 篆書 학습교재이다. 元代 應在가 楷書로 《篆法辨訣》을 쓴 이후 明代 朱之蕃이 篆書를 併記하였다.¹⁾ 이후 《篆訣歌》는 篆書와 楷書가 併記되어 전한다. 현재 한국에서는 충남대학교 도서관에 林得明²⁾의 필사본과 中國 石版本이 소장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 吳世昌이 필사한 《篆訣歌》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계약교수

1) 應在, 《篆法辨訣》, 《佩文齋書畫譜》, 《四庫全書》 第819冊 참조.

2) “林得明의 字는 子道이고, 號는 松月軒이다. 會津 사람이다. 英祖43年 丁亥年에 태어났다. 月影山水圖에 ‘명화와 새로운 시 좋은 솜씨로 빛어졌는데, 어느새 시령 가득 많은 비단 없혀 있네. 작은 집 밤새 자줏빛으로 덮여 괴이하더니, 규벽이 무지개와 같은 대단한 빛을 발하네.’의 시구가 적혀있는데, 詩書畫三絶로 篆籀의 글씨를 잘 썼고, 그림은 鄭謙齋를 배웠다. 지금 살펴보건대 丁亥부터 庚申까지는 34년이니, 松月軒이 젊은 시절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가을 8월 보름에 쓴다. (林得明, 字子道, 號松月軒, 會津人. 英祖四十三年丁亥生. 月影山水圖曰, 名畫新詩好手粧, 居然壓架萬縹緗, 怪來斗屋通宵紫, 奎壁如虹特放光. 詩書畫三絶, 書工篆籀, 畫學鄭謙齋. 今考自丁亥至庚申而三十四年, 是知松月軒少時書也. 秋八月望題.)” - 《林得明本》 뒷표지 여백.

2종이 소장되어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明代 朱之蕃이 篆書를 併記하여 편찬한 책 외에 仰嘉祥이 증보한 《篆法探源》이 전한다. 仰嘉祥의 책은 《篆訣歌》를 증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모든 글자에 篆書를 併記한 원래의 변모를 바꾸어 주요 篆字에만 篆書를 併記하였다.

《篆訣歌》는 초서를 익힐 때 사용하는 王羲之의 《草訣歌》와 필적할 만하다. 하지만 초서를 학습하는 사람들에 비해 전서를 학습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인지 사람들의 관심을 거의 받지 못했다. 2007년에 신영주의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에서 《篆訣歌》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된 이후 줄져인 《<篆訣歌>異本 研究》, 《<篆訣歌>의 轉寫 과정에 따른 誤謬》 등에 의해 《篆訣歌》의 異本과 轉寫 과정에 따른 誤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논문은 앞선 연구에 이어 《篆訣歌》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 위해 이 책의 중점내용인 隸變 분석에 대해 연구하였다.

II. 《篆訣歌》 篆書

신영주는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에서 “범례에 따르면 주지번이 엮은 《전결가》를 처음에 간행한 수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이를 다시 베끼고 번각하여 전하게 되면서 점차 잘못된 부분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옹정 연간(1723~1735)에 李如眞이라는 자가 重訂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주지번이 《전결가》에서 본래 제시하였던 篆書의 자수는 600여자였으나 양가상의 때에 이르러 200자를 증보하여 850자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양가상은 이때 본래 원문의 일부에 대해 句法을 약간씩 변화시키기도 하였고 제시되어 있는 篆文의 일부를 바꾸기도 하였는데 이를 圓圈, 圓點, 米點 등으로 구별하여 원문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³⁾라고 하여 《篆訣歌》의 篆書 자수에 대해 설

3) 신영주,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 《漢文學報》 第16輯,

명하였는데, 이를 통해 《篆訣歌》에서 다루고 있는 篆書 자수가 약 600여자임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는 《篆訣歌》의 篆書 자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 중 115자가 예변에 따른 자형의 합병에 대해 풀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다음과 같다.

	진서	해서		진서	해서		진서	해서		진서	해서
1	𠄎	奉	16	益	益	31	寒	寒	46	沒	沒
2	𠄎	奏	17	𠄎	𠄎	32	履	履	47	表	表
3	𠄎	春	18	𠄎	𠄎	33	活	活	48	素	素
4	𠄎	秦	19	糞	糞	34	屈	屈	49	責	責
5	𠄎	泰	20	差	差	35	兢	兢	50	青	青
6	文	文	21	夾	夾	36	昔	昔	51	喪	喪
7	市	市	22	來	來	37	昔	昔	52	辰	辰
8	方	方	23	農	農	38	巽	巽	53	畏	畏
9	言	言	24	應	應	39	葬	葬	54	展	展
10	交	交	25	鹿	鹿	40	屑	屑	55	𠄎	𠄎
11	永	永	26	岳	岳	41	克	克	56	𠄎	𠄎
12	主	主	27	兵	兵	42	句	句	57	每	每
13	兼	兼	28	勝	勝	43	勺	勺	58	乍	乍
14	並	並	29	牽	牽	44	恒	恒	59	𠄎	𠄎
15	美	美	30	塞	塞	45	桓	桓	60	台	台

우리한문학회, 2007, 53쪽.

	진서	해서		진서	해서		진서	해서		진서	해서
61	𠄎	弁	75	爲	爲	89	賈	賈	103	思	思
62	弘	弘	76	舜	舜	90	票	票	104	胃	胃
63	私	私	77	爵	爵	91	卦	卦	105	最	最
64	贊	贊	78	愛	愛	92	封	封	106	曼	曼
65	輦	輦	79	受	受	93	郭	郭	107	晃	晃
66	替	替	80	布	布	94	孰	孰	108	庚	庚
67	替	替	81	有	有	95	栗	栗	109	唐	唐
68	壺	壺	82	具	具	96	覃	覃	110	胃	胃
69	壺	壺	83	其	其	97	折	折	111	胃	胃
70	壹	壹	84	朋	朋	98	薛	薛	112	音	音
71	橐	橐	85	明	明	99	黃	黃	113	音	音
72	旆	旆	86	胡	胡	100	夢	夢	114	聖	聖
73	馬	馬	87	服	服	101	萬	萬	115	呈	呈
74	鷹	鷹	88	要	要	102	畏	畏			

본고에서는 지면에 따른 제약으로 인해 위의 115자 중 우선 ‘奉’자에서 ‘展’자까지의 54자에 대한 《篆訣歌》의 풀이만을 살펴보고자 한다.

자형과 ‘禾’로 이루어진 것으로 풀이하고, 《說文·臼部》에서 “齋, 擣粟也. 从升持杵臨臼上. 午, 杵省也. (조를 찧는 것이다. 양손인 ‘升’으로 절굿공이를 절구위에 들고 있는 것을 따른다. ‘午’는 ‘杵’의 생략형이다.)”라고 하여 ‘春’의 ‘夫’에 대해 ‘杵’의 생략된 자형인 ‘午’와 ‘升’이라고 풀이하었는데, 이를 통해 ‘秦’의 ‘夫’이 ‘午’와 ‘升’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泰 : 《說文·水部》에서 ‘泰’에 대해 “齋, 滑也. 从升从水, 大聲. (미끄럽다. ‘升’과 ‘水’의 뜻을 따르고, ‘大’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泰’의 ‘夫’이 ‘大’와 ‘升’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𠂔’, ‘𠂕’, ‘𠂖’, ‘𠂗’, ‘𠂘’의 서로 다른 자형이 ‘夫’으로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𠂔’, ‘𠂕’, ‘𠂖’, ‘𠂗’, ‘𠂘’, ‘𠂙’ - ‘𠂚’, ‘𠂛’, ‘𠂜’, ‘𠂝’

文市方言交永主, 難將點畫一般求. [1p]

𠂔 𠂕 𠂖 𠂗 𠂘 𠂙 𠂚 𠂛 𠂜 𠂝 難將點畫一般求.

𠂔 文 𠂕 市 𠂖 方 𠂗 言 𠂘 交 𠂙 永 𠂚 主, 難將點畫一般求.

(‘文’, ‘市’, ‘方’, ‘言’, ‘交’, ‘永’, ‘主’의 점획은 같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1) 文 : 《說文·文部》에서 ‘文’에 대해 “𠂔, 錯畫也. 象交文. (엇갈린 획. 교차시킨 글자를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文’의 ‘𠂔’가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市 : 《說文·市部》에서 ‘市’에 대해 “𠂕, 買賣所之也. 市有垣. 从冂, 从𠂖. 𠂖, 古文及, 象物相及也. 之省聲. (매매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시장에는 담이 있다. ‘冂’와 ‘𠂖’의 뜻을 따른다. ‘𠂖’은 고문의 ‘及’으로 물건이 서로 미침을 상형하였다. ‘之’의 생략형이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市’의 ‘𠂔’가 ‘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方 : 《說文·方部》에서 ‘方’에 대해 “𠂖, 併船也. 象兩舟省總頭形.

(나란한 배. 두 척의 배를 생략한 모습으로 뱃머리를 한데 묶어 놓은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方’의 ‘一’가 ‘ㄷ’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言 : 《說文·言部》에서 ‘言’에 대해 “𠄎, 直言曰言, 論難曰語. 从口辛聲. (‘直言’을 ‘言’이라 하고 ‘論難’을 ‘語’라고 한다. ‘口’의 뜻을 따르고, ‘辛’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言’의 ‘一’가 ‘辛’의 일부 자형인 ‘一’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交 : 《說文·交部》에서 ‘交’에 대해 “𠄎, 交脛也. 从大, 象交形. (교차시킨 정강이. ‘大’의 뜻을 따른다. 교차시킨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交’의 ‘一’가 ‘大’의 일부 자형인 ‘一’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永 : 《說文·永部》에서 ‘永’에 대해 “𠄎, 長也. 象水至理之長. (길다. 물줄기가 긴 것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一’가 ‘丿’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主 : 《說文·丶部》에서 ‘主’에 대해 “𠄎, 鑪中火主也. 从宀, 象形. 从丶, 丶亦聲. (등잔의 불꽃 심지. ‘宀’를 따른다. 象形이다. ‘丶’의 뜻을 따르는데, ‘丶’는 소리도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主’의 ‘一’가 ‘宀’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一’, ‘ㄷ’, ‘ㄷ’, ‘一’, ‘一’, ‘一’, ‘一’의 서로 다른 자형이 ‘一’, ‘一’, ‘一’, ‘一’ 등의 형태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𠄎’, ‘𠄎’ ‘ㄷ’-‘ㄷ’-‘ㄷ’-‘ㄷ’-‘ㄷ’-‘ㄷ’, ‘ㄷ’, ‘ㄷ’

兼并既不同前首, 美益何堪比并箇. [1p]

兼并既不同前首, 美益何堪比并箇.

兼并既不同前首, 美美益何堪比并箇.

(‘兼’과 ‘并’도 위의 자형이 같지 않는데, ‘美’와 ‘益’이 어찌 ‘并’, ‘箇’와 같

을 수 있겠는가?)

(1) 兼 : 《說文·禾部》에서 ‘兼’에 대해 “𥝌, 并也. 从又持秝. 兼持二禾, 秉持一禾. (어우르다. 손으로 ‘秝’을 잡고 있는 것을 따른다. ‘兼’은 두 개의 ‘禾’를 잡고 있는 것이고, ‘秉’은 한 개의 ‘禾’를 잡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兼’의 ‘ㄹ’이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并 : 《說文·从部》에서 ‘并’에 대해 “𠄎, 相從也. 从从并聲. (서로 따르다. ‘从’의 뜻을 따르고, ‘并’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并’의 ‘ㄹ’이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美 : 《說文·羊部》에서 ‘美’에 대해 “𦍋, 甘也. 从羊从大. (달다. ‘羊’과 ‘大’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美’의 ‘ㄹ’이 ‘羊’의 일부 자형인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益 : 《說文·皿部》에서 ‘益’에 대해 “𩚑, 饒也. 从水, 皿. (넉넉하다. ‘水’와 ‘皿’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益’의 ‘ㄹ’이 ‘水’의 일부 자형인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𠄎 : 《說文·干部》에서 ‘𠄎’에 대해 “𠄎, 不順也. 从干, 下中, 𠄎之也. (불순하다. ‘干’의 뜻을 따른다. 아래의 ‘中’은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𠄎’의 ‘ㄹ’이 ‘干’의 일부 자형인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𩚑 : 《說文·酋部》에서 ‘𩚑’에 대해 “𩚑, 釋酒也. 从酉, 水半見於上. (빛은 술. ‘酉’의 뜻을 따른다. 물이 위에서 반쯤 보이는 것을 나타내었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𩚑’의 ‘ㄹ’이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ㄹ’, ‘ㄹ’ ‘ㄹ’-‘ㄹ’-‘ㄹ’-‘ㄹ’의 서로 다른 자형이 ‘ㄹ’, ‘ㄹ’, ‘ㄹ’ 등의 형태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𦵏’, ‘異’ - ‘異’ / ‘𦵏’, ‘羊’ - ‘𦵏’

合辯糞身全異翼, 當知差首亦殊羞. [1p]

合辯 𦵏 糞 身 全 異 翼, 當 知 𦵏 首 亦 殊 羞.

合辯 𦵏 糞 身 全 異 翼, 當 知 𦵏 差 首 亦 殊 羞.

(‘糞’의 아래 자형은 ‘翼’과 완전히 다르다. ‘差’ 위의 자형 역시 ‘羞’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 糞 : 《說文·𦵏部》에서 ‘糞’에 대해 “𦵏, 棄除也. 从升推𦵏棄禾也. (버릴 것. ‘升’이 ‘𦵏’을 밀어 ‘禾’를 버리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糞’의 ‘異’가 ‘升’과 ‘𦵏’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翼 : 《說文·飛部》에서 ‘翼’에 대해 “翼, 翮也. 从飛異聲. 翼, 篆文翼, 从羽. (날개. ‘飛’의 뜻을 따르고, ‘異’의 소리를 따른다. ‘翼’는 篆文의 ‘翼’이다. ‘羽’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翼’의 ‘異’가 ‘異’의 소전 자형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差 : 《說文·左部》에서 ‘差’에 대해 “差, 貳也. 差不相值也. 从左从𦵏. (둘. 차이가 있어 서로 같지 않은 것이다. ‘左’와 ‘𦵏’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差’의 ‘𦵏’가 ‘左’의 일부 자형과 ‘𦵏’가 합쳐진 ‘𦵏’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羞 : 《說文·丑部》에서 ‘羞’에 대해 “羞, 進獻也. 从羊, 羊, 所進也. 从丑, 丑亦聲. (바치다. ‘羊’의 뜻을 따른다. ‘羊’은 진상하는 것이다. ‘丑’의 뜻을 따른다. ‘丑’은 소리도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羞’의 ‘羊’이 ‘羊’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糞’의 ‘𦵏’이 ‘異’로 合併되었고, ‘差’의 ‘𦵏’과 ‘羞’의 ‘羊’이 ‘羊’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ㄹ’, ‘ㄴ’ - ‘从’ / ‘ㄹ’, ‘ㄴ’ - ‘ㄹ’

夾人頗異來人跡, 農字元非曲字頭. [2p]

夾人頗異來人跡, 農字元非曲字頭.

夾 夾人頗異 來 來人跡, 農 農字元非 曲 曲字頭.

(‘夾’의 ‘人’은 ‘來’의 ‘人’과 다르고, ‘農’의 윗부분은 원래 ‘曲’이 아니다.)

(1) 夾 : 《說文·大部》에서 ‘夾’에 대해 “夾, 持也. 从大俠二人. (끼다. ‘大’가 두 개의 ‘人’을 끼고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夾’의 ‘从’이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來 : 《說文·來部》에서 ‘來’에 대해 “來, 周所受瑞麥來麩. 一來二縫, 象芒束之形. (주나라가 받은 상서로운 보리. 하나의 보리와 두 개의 솔기인데, 까끄라기의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來’의 ‘从’이 ‘ㄴ’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農 : 《說文·晨部》에서 ‘農’에 대해 “農, 耕也. 从晨囟聲. (밭 갈다. ‘晨’의 뜻을 따르고, ‘囟’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農’의 ‘曲’이 ‘晨’의 일부 자형과 ‘囟’이 합쳐진 ‘ㄹ’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曲 : 《說文·曲部》에서 ‘曲’에 대해 “曲, 象器曲受物之形. (그릇이 물건을 담고 있는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曲’의 소전 자형이 ‘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夾’의 ‘ㄹ’과 ‘來’의 ‘ㄴ’이 ‘从’으로合併되었고, ‘農’의 ‘曲’이 ‘晨’의 일부 자형과 ‘囟’가 합쳐진 ‘ㄹ’이 ‘曲’의 형태로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 ‘𠂔’, ‘𠂔’, ‘广’ - ‘广’ / ‘夂’, ‘𠂔’, ‘丘’ - ‘丘’

應鹿有頭非是广, 岳兵同首不同丘. [2p]

應 鹿 有 頭 非 是 广, 岳 兵 同 首 不 同 丘.

應 應 鹿 鹿 有 頭 非 是 广 广, 岳 岳 兵 兵 同 首 不 同 丘 丘.

(‘應’과 ‘鹿’의 ‘广’은 ‘广’이 아니고, ‘岳’과 ‘兵’의 ‘丘’는 ‘丘’와 같지 않다.)

(1) 應 : 《說文·心部》에서 ‘應’에 대해 “應, 當也. 从心雍聲. (당하다. ‘心’의 뜻을 따르고, ‘雍’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應’의 ‘广’이 ‘雍’의 일부 자형인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鹿 : 《說文·鹿部》에서 ‘鹿’에 대해 “鹿, 獸也. 象頭角四足之形. (짐승. 머리와 뿔과 네 다리의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鹿’의 ‘广’이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广 : 《說文·广部》에서 ‘广’에 대해 “广, 因广爲屋, 象對刺高屋之形. (‘广’으로 지붕을 삼았다. 마주하여 높이 솟은 지붕의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广’의 소전 자형이 ‘广’으로 ‘應’의 ‘𠂔’, ‘鹿’의 ‘𠂔’ 등의 자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岳 : 《說文·山部》에서 ‘嶽’의 古文인 ‘岳’에 대해 “岳, 古文. 象高形. (古文. 높은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岳’의 ‘丘’가 높은 산을 상형한 모습인 ‘夂’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兵 : 《說文·収部》에서 ‘兵’에 대해 “兵, 械也. 从卩持斤, 并力之兒. (도구. ‘卩’으로 도끼를 잡은 것을 따른다. 힘을 합친 모양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兵’의 ‘丘’가 ‘斤’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丘 : 《說文·丘部》에서 ‘丘’에 대해 “丘, 土之高也, 非人所爲也. 从北从一. (땅이 높은 것.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다. ‘北’과 ‘一’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丘’의 소전 자형이 ‘丘’로 ‘岳’의 ‘夂’, ‘兵’

의 ‘ㄱ’ 등의 자형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應’의 ‘广’과 ‘鹿’의 ‘广’이 ‘广’으로 合併되었고, ‘岳’의 ‘山’과 ‘兵’의 ‘ㄱ’이 ‘丘’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勝’, ‘勞’ - ‘券’ / ‘犖’, ‘牟’ - ‘牟’

勝旁作券元非券, 牽字從犖不是牟. [2p]

勝旁作券元非券, 勞勞勞, 犖犖犖, 牟牟牟, 牟牟牟.

勝旁作券元非券, 勞勞勞, 犖犖犖, 牟牟牟, 牟牟牟.

(‘勝’의 偏旁을 ‘券’으로 적지만 원래는 ‘券’이 아니고, ‘牽’은 ‘犖’을 따르는 것이지 ‘牟’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1) 勝 : 《說文·力部》에서 ‘勝’에 대해 “勝, 任也. 从力朕聲. (능하다. ‘力’의 뜻을 따르고, ‘朕’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勝’의 ‘券’이 ‘朕’의 일부 자형인 ‘勞’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券 : 《說文·力部》에서 ‘券’에 대해 “券, 勞也. 从力, 卷省聲. (힘 쓰다. ‘力’의 뜻을 따르고, ‘卷’의 생략형이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券’의 소전 자형이 ‘勞’으로 ‘勝’의 ‘勞’과 자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牽 : 《說文·舛部》에서 ‘牽’에 대해 “牽, 車軸耑鍵也. 兩穿相背, 从舛, 犖省聲. 犖, 古文楔字. (수레 굴대 끝의 빗장. 두 구멍이 서로 등진 것이다. ‘舛’의 뜻을 따르고, ‘犖’의 생략형이 소리를 나타낸다. ‘犖’은 古文의 ‘楔’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牽’의 ‘犖’이 ‘舛’과 ‘犖’의 일부 자형들이 변형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牟 : 《說文·牛部》에서 ‘牟’에 대해 “牟, 牛鳴也. 从牛, 象其聲气从口出. (소 울음. ‘牛’의 뜻을 따른다. 그 소리가 입에서 나오는 것을 상형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牟’의 소전 자형이 ‘𠂔’로 ‘牽’의 ‘𠂔’과 자형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勝’의 ‘𠂔’이 ‘券’으로 合併되었고, ‘牽’의 ‘𠂔’가 ‘牟’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8. ‘𠂔’, ‘𠂔’ - ‘寒’ / ‘覆’, ‘覆’ - ‘復’

莫道寒寒同一體, 當知覆履不同謀. [3p]

莫道寒寒同一體, 當知覆履不同謀.

莫道 𠂔 寒 𠂔 寒同一體, 當知 覆 履 履不同謀.

(‘寒’과 ‘寒’이 같은 形體라고 말하지 마라. ‘覆’과 ‘履’도 같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1) 寒 : 《說文·土部》에서 ‘寒’에 대해 “𠂔, 隔也. 从土从寒. (막히다. ‘土’와 ‘寒’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고, 《說文·𠂔部》에서 ‘寒’에 대해 “𠂔, 室也. 从𠂔, 从𠂔, 室宀中, 𠂔猶齊也. (막히다. ‘𠂔’과 ‘𠂔’의 뜻을 따르는데, ‘宀’ 안에서 막힌 것을 나타낸다. ‘𠂔’은 ‘齊’와 같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寒’의 ‘寒’이 ‘宀’, ‘𠂔’, ‘𠂔’ 등이 합쳐진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寒 : 《說文·宀部》에서 ‘寒’에 대해 “𠂔, 凍也. 从人在宀下, 以𠂔薦覆之, 下有宀. (차다. ‘人’이 ‘宀’ 아래에서 ‘𠂔’을 덮고 있고, 아래에 ‘宀’이 있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寒’의 ‘寒’이 ‘宀’, ‘𠂔’, ‘人’ 등이 합쳐진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覆 : 《說文·𠂔部》에서 ‘覆’에 대해 “𠂔, 𠂔也. 一曰蓋也. 从𠂔復聲. (엎다. 일설에 따르면 ‘덮다’의 뜻이 있다. ‘𠂔’의 뜻을 따르고, ‘復’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고, 《說文·彳部》에서 ‘復’에 대해 “復, 往來也. 从彳復聲. (왕래. ‘彳’의 뜻을 따르고, ‘復’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履’의 ‘復’이 ‘彳’와 ‘復’이 합쳐진 ‘履’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履：《說文·履部》에서 ‘履’에 대해 “履，足所依也。从尸从彳从攴，舟象履形。一曰尸聲。(발이 의지하는 것. ‘尸’, ‘彳’, ‘攴’의 뜻을 따른다. ‘舟’는 신의 모양을 상형한 것이다. 일설에 따르면 ‘尸’는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履’의 ‘復’이 ‘彳’, ‘舟’, ‘攴’ 등이 합쳐진 ‘履’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寒’의 ‘冱’이 ‘寒’으로合併되었고, ‘履’의 ‘履’이 ‘復’으로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9. ‘活’, ‘活’ - ‘舌’ / ‘屈’, ‘由’ - ‘由’

若解活恬難共舌，方知屈宙不同由。[3p]

若解活恬難共舌，方知屈宙不同由

若解活恬難共舌，方知屈宙不同由。

(‘活’과 ‘恬’은 ‘舌’이 같지 않고, ‘屈’과 ‘宙’도 ‘由’의 자형이 서로 같지 않다.)

(1) 活：《說文·水部》에서 ‘活’에 대해 “活，水流聲。从水昏聲。(물 흐르는 소리. ‘水’의 뜻을 따르고, ‘昏’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活’의 ‘舌’이 ‘昏’의 고문자인 ‘活’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屈：《說文·尸部》에서 ‘屈’에 대해 “屈，行不便也。一曰極也。从尸出聲。(걸음이 불편하다. 일설에 따르면 ‘끝나다’의 뜻이 있다. ‘尸’의 뜻을 따르고, ‘出’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屈’의 ‘由’가 ‘出’의 고문자인 ‘屈’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活’의 ‘活’이 ‘舌’로合併되었고, ‘屈’의 ‘屈’이 ‘由’로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𠄎’, ‘亨’ - ‘克’

須知兢字非雙克, 當記曹頭用兩東. [5p]

須知 𠄎 兢字非雙 亨 克, 當記 曹頭用兩 東 東.

須知 𠄎 兢字非雙 亨 克, 當記 曹頭用兩 東 東.

(‘兢’이 두 개의 ‘克’이 아님을 알아야 하고, ‘曹’의 윗부분에 두 개의 ‘東’을 써야 할 것을 기억해야 한다.)

(1) 兢 : 《說文·兄部》에서 ‘兢’에 대해 “𠄎, 競也. 从二兄. 二兄, 競意. 从彡聲. 讀若矜. 一曰兢, 敬也. (겨루다. 두 개의 ‘兄’을 따르는데, 두 개의 ‘兄’은 ‘겨루다’의 뜻을 나타낸다. ‘彡’의 소리를 나타낸다. ‘矜’과 같이 읽는다. 일설에서 ‘兢’을 ‘敬’의 뜻으로 풀이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兢’의 ‘克’이 ‘兄’과 ‘彡’가 합쳐진 ‘𠄎’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兢’의 ‘𠄎’이 ‘克’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1. ‘𠄎’, ‘𠄎’ - ‘𠄎’ / ‘𠄎’, ‘異’, ‘𠄎’ - ‘共’

昔比𠄎頭皆非𠄎, 巽同異足各非共. [6p]

昔比 𠄎 頭皆非 𠄎, 巽同異足各非 共.

昔比 𠄎 頭皆非 𠄎 𠄎, 巽 巽同 異 異足各非 共 共.

(‘昔’과 ‘𠄎’의 윗부분은 비슷하지만 모두 ‘𠄎’은 아니고, ‘巽’과 ‘異’의 밑부분은 같아 보이지만 모두 ‘共’이 아니다.)

(1) 昔 : 《說文·日部》에서 ‘昔’에 대해 “𠄎, 乾肉也. 从殘肉, 日以晞之. (말린 고기. 해진 ‘肉’의 뜻을 따른다. ‘日’로써 말린 것이다.)”라고 하

었는데, 이를 통해 ‘昔’의 ‘𠂔’이 ‘殘肉’을 상형한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昔 : ‘昔’은 《說文》에 없다. ‘散’의 소전체인 ‘𠂔’이 ‘𠂔’편방을 취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昔’이 ‘散’의 왼쪽 편방을 지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3) 巽 : 《說文·兀部》에서 ‘巽’에 대해 “𠂔, 具也. 从兀𠂔聲. 𠂔, 古文巽. 𠂔, 篆文巽. (갖추다. ‘兀’의 뜻을 따르고, ‘𠂔’의 소리를 따른다. ‘𠂔’은 古文的 ‘巽’이고, ‘𠂔’은 篆文的 ‘巽’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巽’의 ‘共’이 ‘𠂔’의 일부자형과 ‘兀’이 합쳐진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巽 : 《說文·巽部》에서 ‘巽’에 대해 “巽, 分也. 从升从𠂔. 𠂔, 予也. (나누다. ‘升’과 ‘𠂔’의 뜻을 따른다. ‘𠂔’은 ‘주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巽’의 ‘共’이 ‘𠂔’의 아래 자형과 ‘升’이 합쳐진 ‘巽’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昔’의 ‘𠂔’과 ‘昔’의 ‘𠂔’이 ‘𠂔’으로 合併되었고, ‘巽’의 ‘𠂔’과 ‘巽’의 ‘巽’이 ‘共’으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𠂔’, ‘𠂔’ - ‘米’ / ‘𠂔’, ‘𠂔’ - ‘肖’

𠂔頭有米炎爲正, 𠂔下如肖肖是眞. [7p]

𠂔頭有米炎爲正, 𠂔下如肖肖是眞.

𠂔 𠂔頭有 米 米 炎 炎爲正, 𠂔 𠂔下如 肖 肖 肖 肖是眞.

(‘𠂔’ 윗부분에 ‘米’가 있지만 ‘炎’이 있는 것이 正字이고, ‘𠂔’ 아랫부분은 ‘肖’ 같지만 ‘肖’이다.)

(1) 𠂔 : 《說文·炎部》에서 ‘𠂔’에 대해 “𠂔, 兵死及牛馬之血爲𠂔. 𠂔,

鬼火也。从炎、舛。(병사가 죽거나 소와 말이 죽어 생긴 피를 ‘瘞’이라고 한다. ‘瘞’은 도깨비불이다. ‘炎’과 ‘舛’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瘞’의 ‘米’가 ‘炎’의 고문자인 ‘𤇀’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屑 : 《六書正譌》에서 ‘屑’에 대해 “俗作屑非.”라고 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屑’가 ‘屑’의 俗字임을 알 수 있다. 《說文·尸部》에서 ‘屑’에 대해 “𠂔, 動作切切也。从尸肖聲。(움직임이 절절한 것. ‘尸’의 뜻을 따르고, ‘肖’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屑’의 ‘肖’가 ‘肖’의 고문자인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瘞’의 ‘𤇀’이 ‘米’로 合併되었고, ‘屑’의 ‘𠂔’가 ‘肖’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3. ‘𠂔’, ‘𠂔’ - ‘儿’

兄允兌充皆共足, 獨於克字不同人. [9p]

兄 允 兌 充 皆 共 足, 獨 於 克 字 不 同 人.

兄 兄 允 兌 充 皆 共 足, 獨 於 𠂔 克 字 不 同 人.

(‘兄’, ‘允’, ‘兌’, ‘充’는 모두 아랫부분이 같지만, 유독 ‘克’은 ‘人’이 아니다.)

(1) 克 : 《說文·克部》에서 ‘克’에 대해 “𠂔, 肩也。象屋下刻木之形。(견디다. 지붕 아래 새긴 나무의 모양을 상형하였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克’의 ‘儿’이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克’의 ‘𠂔’이 ‘儿’으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𠂔’, ‘𠂔’, ‘𠂔’ - ‘亅’

인 ‘冃’가 합쳐진 자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沒 : 《說文·水部》에서 ‘沒’에 대해 “灑, 沈也. 从水从冃. (가라앉다. ‘水’와 ‘冃’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沒’의 ‘冃’가 ‘冃’의 고문자인 ‘冃’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恒’의 ‘冃’이 ‘亓’으로 合併되었고, ‘沒’의 ‘冃’이 ‘冃’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6. ‘衤’, ‘衤’, ‘衤’, ‘衤’ - ‘衤’, / ‘衤’, ‘衤’, ‘衤’, ‘衤’ - ‘衤’

表素責青頭并異, 喪辰畏展足皆殊. [9p]

衤衤衤青頭並異, 衤喪辰畏展足皆殊.

衤表素責青頭並異, 衤喪辰畏展足皆殊.

(‘表’, ‘素’, ‘責’, ‘青’의 윗부분은 모두 다르고, ‘喪’, ‘辰’, ‘畏’, ‘展’의 아랫부분도 모두 다르다.)

(1) 表 : 《說文·衣部》에서 ‘表’에 대해 “衤, 上衣也. 从衣从毛. (상의. ‘衣’와 ‘毛’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表’의 ‘衤’가 ‘衣’ 고문자의 일부인 ‘衤’와 ‘毛’의 고문자인 ‘衤’가 합쳐진 자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素 : 《說文·素部》에서 ‘素’에 대해 “縑, 白繒縑也. 从糸, 𠂔, 取其澤也. (흰 비단. ‘糸’와 ‘𠂔’의 뜻을 따르는데, 윤이 나는 것을 취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素’의 ‘衤’가 ‘𠂔’의 고문자인 ‘𠂔’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責 : 《說文·貝部》에서 ‘責’에 대해 “責, 求也. 从貝束聲. (요구하다. ‘貝’의 뜻을 따르고, ‘束’의 소리를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責’의 ‘衤’가 ‘束’의 고문자인 ‘束’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4) 青 : 《說文·青部》에서 ‘青’에 대해 “靑, 東方色也. 木生火, 从生、丹. (동쪽 색. 나무에서 불이 생기는데, ‘生’과 ‘丹’의 뜻을 따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靑’의 ‘丰’가 ‘生’의 고문자인 ‘丰’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喪 : 《說文·哭部》에서 ‘喪’에 대해 “喪, 亾也. 从哭从亾. 會意. 亾亦聲. (없다. ‘哭’과 ‘亾’의 뜻을 따른다. 회의이다. ‘亾’은 소리도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喪’의 ‘亾’이 ‘哭’ 고문자의 일부와 ‘亾’의 고문자가 합쳐진 자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6) 辰 : 《說文·辰部》에서 ‘辰’에 대해 “辰, 震也. 三月, 陽氣動, 靄電振, 民農時也. 物皆生, 从乙、匕, 象芒達; 厂, 聲也. 辰, 房星, 天時也. 从二, 二, 古文上字. (천둥. 3월에 양기가 움직여 우레와 번개가 치는데,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이다. 만물이 모두 생겨난다. ‘乙’의 뜻을 따른다. ‘匕’의 뜻을 따르는데, 까끄라기가 나온 것을 상형한 것이다. ‘厂’은 소리를 나타낸다. ‘辰’은 房星으로 天時이다. ‘二’의 뜻을 따르는데, ‘二’는 古文의 ‘上’자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辰’의 ‘亾’이 ‘乙’, ‘匕’와 ‘二’의 일부 자형이 합쳐진 자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 畏 : 《說文·由部》에서 ‘畏’에 대해 “畏, 惡也. 从由, 虎省. 鬼頭而虎爪, 可畏也. (악. ‘由’의 뜻을 따르고, ‘虎’의 생략형을 따른다. 귀신의 머리와 호랑이의 발톱은 가히 두려운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畏’의 ‘亾’이 ‘虎’ 생략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 展 : 《說文·尸部》에서 ‘展’에 대해 “展, 轉也. 从尸, 襄省聲. (구르다. ‘尸’의 뜻을 따르고, ‘襄’의 생략형이 소리를 나타낸다.)”라고 하였는데, 이를 통해 ‘展’의 ‘亾’이 ‘襄’ 생략형의 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고증에 따르면 ‘表’의 ‘丰’, ‘素’의 ‘丰’, ‘責’의 ‘丰’, ‘靑’의 ‘丰’이 ‘丰’으로 合併되었고, ‘喪’의 ‘亾’, ‘辰’의 ‘亾’, ‘畏’의 ‘亾’, ‘展’의 ‘亾’이 ‘亾’으로 合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結論

이상으로 《篆訣歌》의 예변에 따른 자형 합병에 대한 풀이를 살펴보았는데, 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奉	𠂔	奉	夫	5	差	𠂔	差	𠂔	14	活	舌		
	𠂔	𠂔	奏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春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秦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泰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2	文	𠂔	文	十一 二 一	7	曲	𠂔	農	曲	15	宙	由		
	市	𠂔	市			𠂔	𠂔	𠂔			𠂔		𠂔	
	方	𠂔	方			𠂔	𠂔	𠂔			𠂔		𠂔	
	言	𠂔	言			𠂔	𠂔	𠂔			𠂔		𠂔	
	交	𠂔	交			𠂔	𠂔	𠂔			𠂔		𠂔	
	永	𠂔	永			𠂔	𠂔	𠂔			𠂔		𠂔	
3	兼	𠂔	兼	八 五 一	8	廣	𠂔	應	廣	16	兢	克		
	并	𠂔	并			𠂔	𠂔	𠂔			𠂔		𠂔	
	美	𠂔	美			𠂔	𠂔	𠂔			𠂔		𠂔	
	益	𠂔	益			𠂔	𠂔	𠂔			𠂔		𠂔	
	並	𠂔	並			𠂔	𠂔	𠂔			𠂔		𠂔	
	酋	𠂔	酋			𠂔	𠂔	𠂔			𠂔		𠂔	
4	異	𠂔	異	異	9	丘	𠂔	岳	丘	17	昔	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5	券	𠂔	券	券	10	勝	𠂔	勝	券	18	共	共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6	寒	𠂔	寒	寒	11	寒	𠂔	寒	寒	19	米	米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7	復	𠂔	復	復	12	復	𠂔	復	復	20	肖	肖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8	兒	𠂔	兒	兒	13	兒	𠂔	兒	兒	21	兒	兒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21	𠂔	儿	充	儿	23	𠂔	𠂔	亘	亘	25	青	𠂔	青	主
	𠂔	儿	克			𠂔	𠂔	没	没		𠂔	𠂔	𠂔	喪
22	𠂔	勺	句	勺	24	𠂔	𠂔	没	没	26	𠂔	𠂔	辰	
	𠂔	勺	匀			𠂔	𠂔	没			𠂔	𠂔	畏	
	𠂔	勺	匀			𠂔	𠂔	表			𠂔	𠂔	展	
23	𠂔	亘	恒	亘	25	𠂔	𠂔	素	主					
	𠂔	亘	桓			𠂔	𠂔	素		𠂔	𠂔			
	𠂔	亘	桓			𠂔	𠂔	責		𠂔	𠂔			

이상의 분석을 통해 《篆訣歌》에서 ‘夫’,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異’, ‘𠂔’, ‘从’, ‘曲’, ‘广’, ‘丘’, ‘券’, ‘牟’, ‘寒’, ‘復’, ‘舌’, ‘由’, ‘克’, ‘主’, ‘共’, ‘米’, ‘肖’, ‘儿’, ‘勺’, ‘亘’, ‘没’, ‘主’, ‘𠂔’ 등의 26가지 해서자형에 대해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夫’,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𠂔 → 𠂔, 𠂔, 𠂔’, ‘𠂔, 𠂔 → 異’, ‘𠂔, 𠂔 → 𠂔’, ‘𠂔, 𠂔 → 从’, ‘𠂔, 𠂔 → 曲’, ‘𠂔, 𠂔, 𠂔 → 广’, ‘𠂔, 𠂔, 𠂔 → 丘’, ‘𠂔, 𠂔 → 券’, ‘𠂔, 𠂔 → 牟’, ‘𠂔, 𠂔 → 寒’, ‘𠂔, 𠂔 → 復’, ‘𠂔, 𠂔 → 舌’, ‘𠂔, 𠂔 → 由’, ‘𠂔, 𠂔 → 克’, ‘𠂔, 𠂔 → 主’, ‘𠂔, 𠂔, 𠂔 → 共’, ‘𠂔, 𠂔 → 米’, ‘𠂔, 𠂔 → 肖’, ‘𠂔, 𠂔 → 儿’, ‘𠂔, 𠂔, 𠂔 → 勺’, ‘𠂔, 𠂔 → 亘’, ‘𠂔, 𠂔 → 没’, ‘𠂔, 𠂔, 𠂔, 𠂔 → 主’, ‘𠂔, 𠂔, 𠂔, 𠂔 → 𠂔’ 등과 같이 원래의 서로 다른 전서 자형이 동일한 해서 자형으로 합병되었던 것을 설명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References>

1. Han, Tianheng. *Zhuan Fa Bian Jue*. Shanghai Bookstore, 1985.

2. Sin Yongju. “Research on Messenger Zhu Zhi Fan’s Korea Visit and Literary Communication”. *Hanmunhakbo :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in Chinese*, Woori Society of Korean Literature in Classical Chinese 16, (2007).
3. Song Siyel. *Songz Zi Da Quan*, ComprehensiveDB of Korean classics, [http : //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4. Suh Hanyong. “Different Versions of Zhuan Jue G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1, (2014).
5. Suh Hanyong. “The Errors Appeared in the Transcription of Zhuanjuege”.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69, (2015).
6. Ying Je. *Zhuan Jue Bian Jue. Pei Wen Zhai Shu Hua Pu. Si Ku Quan Shu* 819.
7. Zeng Zekju. “Abstract”. *Zhuan Jue Ge* (Wi Chang Gu433-52),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 : //www.nl.go.kr/nl/index.jsp](http://www.nl.go.kr/nl/index.jsp)
8. Zhu, Zhifan. *Zhuan Fa Tan Yuan*. Yee Wen Publishing Company, 1971.

<참고문헌>

1. 韓天衡, 《篆法辨訣》, 上海書店, 1985.
2. 신영주, <朱之蕃의 조선 사행과 문예교류에 관한 일고>, 《漢文學報》 第16輯, 2007.
3.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고전종합DB, [http : //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4. 徐漢庸, <《篆訣歌》異本 研究>, 《中國語文論叢》 第61輯, 2014.
5. 徐漢庸, <《篆訣歌》의 轉寫 과정에 따른 誤謬>, 《中國語文論叢》 第

69輯, 2015.

6. 應在, 《篆法辨訣》, 《佩文齋書畫譜》, 《四庫全書》第819冊.
7. 정재규, <초록>, 《篆訣歌》(위창古433-52), 국립중앙도서관, [http :
// www.nl.go.kr/nl/index.jsp](http://www.nl.go.kr/nl/index.jsp)
8. 朱之蕃, 《篆法探源》, 藝文印書館, 1971.

<Abstract>

The 《Zhuanjuege(篆訣歌)》, quatrain with seven Chinese characters in each line, has the Gugyeols, a system for rendering texts written in the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into another understandable form of the Lishu(隸書) writing system and is the textbook for the learning of the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The book was written in Kaishu(楷書) writing system by Ying Zai(應在) in Won Dynasty and the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was added and edited by Zhu, Zhi-fan(朱之蕃) in Ming Dynasty. Due to the addition of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by Zhu, Zhi-fan(朱之蕃), the book has undergone some radical changes in the seven texts such as 《Zhuanfabianjue(篆法辨訣)》 written in Kaishu(楷書) writing system by Ying, Zai(應在), Zhong Guoshibanben(中國石版本), Lindemingben(林得明本), Weichangduben(韋倡讀本), Weichang-chaoben(韋倡鈔本) written in Kaishu(楷書) writing system and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by Zhu, Zhi-fan(朱之蕃), 《Zhuanfatanyuan(篆法探源)》 written in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by Yang, Jia-xiang(仰嘉祥), and 《Zhuanjuege(篆訣歌)》 written in Zhuanshu(篆書) writing system by Han, Tian-heng(韓天衡). This article aims at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Zhuanshu(篆書) and Kaishu(楷書) of 《Zhuanjuege(篆訣歌)》.

Key Words : 篆訣歌(Zhuanjuege), 朱之蕃(Zhu, Zhi-fan), 應在(Ying Zai),
篆書(Zhuanshu), 楷書(Kaishu)

